



표지사진 : 아프리카니스탄 남부 칸다하르부근 스피ن불다크지역의 난민어린이들 (2002. 9월)

JTS 통권 38호 2002년 11 · 12월

펴낸날 : 2002. 11.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윤미옥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아프가니스탄 소식

- 4 모래바람, 모래폭풍, 먼지투성이
- 6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 8 나에게 다가온 아프간
- 10 빨리 평화가 오길

인도 통게스와리 소식

- 11 인도에서 온 편지
- 12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련다
- 13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있기에
- 14 소중한 경험

광고

- 15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기술 중 · 고등학교

지금 북한에서는

- 16 혹독한 겨울

후원의 소리

- 18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 20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 새로운 만남"

따뜻한 이웃

- 21 북한어린이를 꾸준히 돕고 있는 인헌중학교

활동보고 및 안내

- 22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아프가니스탄 소식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 24 신규회원 명단 및 물품지원
- 26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28 라진 · 선봉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 30 작은 정성이 모여져 큰 버팀목이



모래바람, 모래폭풍, 먼지투성이

법륜(法輪) / (사) 한국제이티에스 이사장



아프카니스탄은 지난 22년 동안 러시아와의 전쟁, 공산주의와 전쟁, 종족간의 내전, 탈레반의 집권등으로 공장, 건물, 가옥, 도로 등 대부분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극단적 정책으로 교육시설 및 제도까지 완전붕괴 된 상태이다. 특히 최근 5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및 목축업 기반마저도 무너져버려 전쟁을 피해 타국으로 이주해 간 난민뿐만 아니라 자국내 유민(IDP)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전쟁을 피해갔던 난민들이 150여만 명이 되돌아 왔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향은 완전 파괴되어 살 집도 없는 상태이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도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는 형편이라 자국내 유민, 국제 난민의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특히, 탈레반 시절에는 모든 학교를 폐쇄하였기에 교육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 길게는 22년, 짧게는 8년간 폐쇄된 학교를 곳곳에서 다시 열고 있지만 학

교시설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한 것은 교제도, 학습품도 없는 상태에다 교사마저도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고등학교(12학년) 졸업자를 선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교사의 대부분이 40대였다.

JIS는 어린이들의 교육, 영양,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단체로서 이미 인도 등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아프카니스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를 직접 답사하였다.

칸다하르로 가는 방향인 카불 시내 남서쪽은 도시 전체가 완전 파괴되어 성한 건물은 아예 없었다. 6년 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지난 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5층 짜리 큰 건물이 학교 건물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천장도 포탄에 의해 곳곳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교실마다 아이들이 앉아

수업을 하고 있었다. 폐교된지 6년, 개교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학생이 8800명이라고 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했더니, 교과서, 학용품, 학교건물보수 등을 꼽았다.

다음날 다시 북쪽으로 차를 달렸다. 미르바차 코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길가에 UNHCR과 UNICEF가 여기에 집 짓는 것을 도와준다, 우물을 파줬다는 내용의 간판들이 있고 NGO간판들도 길 옆에 쭉 보였다. 또 길가에는 부서진 탱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은 모두 파괴된 모습이였다.

다음날, 칸다하르로 가겠다고 하니가 모두 비행기로 가라고 했다. 카불에는 300여개의 NGO가 있지만 칸다하르 지역에는 거의 없고, 교통편이 너무 나쁘고 가는 길은 치안이 안전하지 못하니 UN 비행기로 가라고 했다. 비행기 값이 편도에 1인당 \$300이라고 했다.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다니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처음 계획대로 육로로 가기로 했다.

5시 20분에 출발. 50Km 가는 동안은 길이 좋았다. 그래서 왜 이런 길을 열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1시간쯤 지나자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계속되었다. 가는 길의 대부분은 사막이었다. 모래바람,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먼지뿐이었다.

먼지를 뽀얗게 뒤덮어 쓰고 UNHCR에 도착했다. 운전기사와 통역은 1시간 후에 오라고 셋으러 보내고, UNHCR사무실로 들어가서 난민상황을 알아보면서 제일 열악한 곳이 어디냐 하니가 반즈웨이(Panjwey)라는 곳에 있는 IDP 캠프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IDP캠프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물으니 2,000가구 10,000명 정도 규모에 학교는 당연히 없다고 한다. 대부분 가뭄으로 인해 남쪽 라게스탄 지역에서는 온 사람들이란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 겨울이 오는데 옷하고 담요, 텐트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음식은 UN에서 두 달에 50kg을 주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스핀볼다에는 전날 본 것보다 더 큰 난민촌이 있었다. 우리가 가는 길가 오른쪽에서 그 중에 3개 난민촌을 봤는데 UNHCR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5개가 있다고 한다. 5개에 총 4,500가구 25,000여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전쟁난민이기 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자국내 난민들이다. 전쟁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자국내에서 생긴 가뭄으로 인한 난민이고, 그리고 대부분 파스툰 족으로 종족싸움이 생기면서 북쪽의 각 마을에 소수로 있는 파스툰족이 탄압을 받아 밀로 내려왔다. 유목민 수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가뭄으로 먹을게 없는 농민이다. 세 번째가 소수 파스툰 족이 쫓겨 내려온 것, 네 번째가 미군들 폭격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도리어 우리 같은 작은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있었다. 도와야 될 열악한 대상은 엄청난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런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모콜에 10시, 가즈니에 오후 1시, 시쿠아바드에 3시15분 도착, 4시 출발하여 6시30분에 카불에 도착했다. 올 때는 18시간 걸렸다.

추석이었는데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코피도 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몸이 아팠다. 보름달만 둥그러니 밝고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길을 헤초스님은 걸어서 갔을 것을 생각하니 헤초스님도 저 달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많은 여행을 해보았지만 이 칸다하르로 갔다오는 육로 길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박지나 / (사)한국제이티에스 이사

지난 10월 8일 박지나이사님과 선주(이덕아)님이 인천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아프카니스탄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가면서의 소감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웃음)
아프카니스탄에 가서 JTS의 이름을 걸고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프카니스탄 답사 중의 느낌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느낌은?

그곳은 JTS에서 소형 댐 공사를 하여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학교를 지어주기
로 한 곳입니다.

답사를 하던 중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카불 북부 지역인 파르자 지역에 갔었을 때입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데, 범룡스님께서는 저 산 위에 나무도 있고 하여 한번 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밑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그 동네 사람이 나에게 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이 물을 마셔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 하며 마셨습니다. 정말 시원한 물이었고 먹고 나서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려니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조금 전에 탄 사과 비슷한 과일을 물에 씻어서 들고 왔고 또 한사람이 포도를 들고 와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러 왔다는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나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수 십 년간의 전쟁으로 집이 거의 다 무너져서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한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파키스탄의 난민촌에 있다가 본국으로 귀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미처 올 겨울 준비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겨울 나기 위한 담요, 겨울의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JIS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붕괴된 학교를 지어주고 학용품, 교복 등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문구류 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 생활 필수품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서 파키스탄의 난민촌도 둘러보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로 들어갈 예정인데, 가자마자 NGO등록을 마치면 카불에서 40km 떨어진 북부 지역인 파르자지역에서 식수 공급을 위한 댐 공사를 바로 시작해 나갈 것이고 남부 칸타하르 지역의 구호사업 개척을 위해서 활동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JIS에서는 무척 긴급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로 되는 것은 후원금입니다.

■ 지난 10월 7일 라디오 방송에 박이사님이 출연하신 후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이 메말라 있는 때에 전화도 많이 오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따듯함이 느껴집니다.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따듯한 온정이 느껴집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최소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아프간

유정길 / 실무자, 아프카니스탄 파견



그 동안 정토회에서 어언 십 칠 년간의 활동,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역시 한정된 영역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직순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공양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에겐 정말 새롭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8개월 정도가 지나 조금 익숙해지려고 할 때, 아프카니스탄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은 진행 중이었지만, 모르고 있는 나에겐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문에서 오가는 하나의 긴급한 정보였을 뿐, 그러나 정토회에서 그러한 상황을 접 할 때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접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간은 이미 22년간의 전쟁으로 국가의 기간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초토화된 것이 작년 미국의 폭격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여 년간의 내전으로 지붕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카불공항에는 폭파된 비행기 잔해가 널려있지만 치울만한 행정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20년간 문을 닫아서 이미 한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은 붕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와 인도 델리에 와보니 그래도 푸른 숲과 나무들이 있고 풍부한 물건과 사람들을 보며 아프간에 비해 인도는 천국입니다’는 법륜스님의 말씀이 마음을 굳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공양간 일을 맡고 있고 정해진 기간동안 충실하게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인도와는 달리 여자들이 다니기가 어려워 여자활동가가 일하기는 쉽지 않고, 교섭력과 어학능력이 다소 있는 ‘남자’가 요구된다면 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바닥으로

내가 해온 활동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해온 덕에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위가 주어진 편입니다. 대외활동을 하면 책임있는 실무책임자의 직위로 그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편익과 자리가 주어졌고,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나가거나 언제나 이제 대접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겐 또 다른 안락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내면의 가능성의 씨앗이 발아될 또다른 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익의 나락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나를 실험해야할 때가 온 것입니다.

86년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어 1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위장취업을 위해 용접을 한 6개월 배웠습니다. 당시 내가 느꼈던 소위 ‘현장활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을 느끼고 만나며, 힘을 얻고 역사변화의 씨앗을 느끼는 것이었지요. 그러한 ‘아래로의 향함’이 사회운동가들의 순수성이자 도덕성의 에너지였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향, 바닥운동의 체험과 삶”을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분별하는 나를 돌아보고 내려놓으며 살림과 평상심,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이며,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사랑하는 곳이고,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동력이자, 수행의 장입니다. 그 동안 정도회와 사회 활동속에 나에겐 많은 현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현장은 언제나 고통이 가까이 있고, 귀찮음, 피곤함, 짜증과 익숙해져야 하며, 갈증과 무더위, 땀과 더러움, 추위와 배고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죽음이 언제나 곁에서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편로가 아니라 뛰어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현장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온 것이지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빨리 평화가 오길

이덕아 / 실무자, 아프카니스탄 파견



■ 인도에서 6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다 이번 고국에 와서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다시 아프카니스탄에 파견되니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주위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크게 기쁜 표시 안 내려고 했는데, 속마음은 숨길 수가 없네요. 또 제가 맘껏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 신문이나 방송, 비디오에서 아프카니스탄 소식을 접하였을 때의 느낌은?

내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힘듦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 현지에 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파악과, NGO등록하는 것과 더불어 박지나 님이 수고하실 것이고, 당분간 저는 현지 조사해서 댐 건설과 학교 물자 구호 품이 올 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신문이나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이 분들께 하고픈 이야기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물품도 보내주세요.

■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면?

아프칸에 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온 편지

장영주(아칸차)/실무자, 수자타아카데미 책임자

안녕하세요. 장영주입니다.

이제 여기도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5월 같으면 시장에 나가려면 필수로 마실 물부터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적응하기에 훨씬 수월하지요.

낮선 곳에 와서 물 갈아먹고 공동체 생활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 보드가야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을 먹고 나서 설사도 멎고 마음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최태숙씨와 최용석씨는 병원 결핵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너머 가왈비가에 사는 결핵환자가 약을 타러 오지 않아서 약을 갖다 주고 왔습니다.

고민희씨와 명송이는 병원 접수처에서 접수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씨와 권소현씨는 월-목은 오전에 직영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각각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1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별 수업시간에는 바느질, 스포츠, 음악,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는 기술중학교 건물이 미장이 끝나서 페인트칠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건물은 선반 작업에 들어갔고요.

운동장 평탄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부식창고는 터뒀기에 들어갔습니다.

설성봉거사님 부도 답도 시작해야 하고...

할 일은 많고 허반기 일정이 짧아 마음이 바쁘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비스카르마 푸자 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연장을 잘 닦아 음식과 함께 푸자(제) 상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푸자 끝나고 가야에 있는 가장 좋은 극장 아난드 극장에 영화 보러갑니다.

비용은 라브 브라더가 잔돈을 모아 떠날 때 아저씨들 위해 쓰라고 보시한 1445루피와 철 토막을 판 1140루피로 대었습니다.

영화보고 맛있는 점심도 먹을 겁니다.

한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욱 즐겁게 일을 하게 되겠지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련다

최태숙 / 인도 자원봉사자, 지바키병원 결핵실 담당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 나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큰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기서 사는 동안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았으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오만함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게 되었다.

진정 봉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난 이제 이러한 말에 자신이 없다. 봉사라니 남을 위한다느니 그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생각 같은 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야 누가 누구를 위한 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여기서 사는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나의 스승이고 이곳은 나의 수행처이다. 그리하여 나라는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듯이 이들을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봉사자입니다 라고 말하겠다.

처음 여기 와서 한달 정도는 많이 힘들었다. 내가 여길 도대체 왜 왔는지, 꼭 이렇게 살아야 만이 내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건지, 나 자신 하나도 추스르지 못해 힘드는데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건지 기타 등

등... 한 달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이젠 거의 이곳 사람들을 반 이상은 알아 가는 꼴로써 내 모습에 자유를 느끼고 그 더럽고 불편한 생활이 즐겁기까지 한다. 이런 즐거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싶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 어찌되었건 여기서 하는 일은 참으로 뜻있고 꼭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 밥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난 아직도 먹기 힘든 그런 밥인데 없어서 못 먹는다는 듯이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모습에 내 살찐 몸이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비쩍 마른 사람들, 마을 마을마다 병들고, 잘 먹지 못해서 힘없이 보이는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곳에서 난 정말 헛되어 살고 싶지 않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있기에

최용석(Akash) / 인도 자원봉사자, 지이바카병원 결핵실 담당

한국을 떠난 지 40여일 ‘수지타 아카데미’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달이 넘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달간의 시간동안 만약 누군가 나에게 ‘1달 동안 뭐했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고, 실제로도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결핵실이다. 결핵 환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병이 완치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일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것 같다. 내가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가 약을 잘 먹지 않는다면 약을 잘 먹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밥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결핵 환자에게 약 10인분의 밥을 제공하는데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뿐만 아니라 노인이 들어와 밥을 달라면 정말 곤란하다. 그냥 쉽게 밥을 주면 편한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밥이 남아 어떤 할머니에게 밥을 주었는데, 다음날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밥을 쥐여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

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반면 즐거운 일 또한 많았다. 언제나 즐거운 건 인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다. 어찌

다 마을을 방문하거나 외부로 외출할 때, 인도 어린이들은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준다. 특히 ‘오토릭샤’나 ‘지프’를 타고 지나갈 때면 어떤 카퍼레이드도 부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외출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다.

또한 ‘수지타 아카데미’ 교장선생님이신 뿌리앙카에게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놀러 갔었다. 그녀와 그녀의 식구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잘해주던지, 마치 우리 시골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날은 인도인의 진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다. 남은 5개월 여의 시간도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웃는 날이 많기를 소망한다. 아니 항상 즐겁게 지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인도인들 특히 동계스와 리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소중한 경험

권소현(Punam) / 인도 자원봉사자, 수자타아카데미 교사



오늘은 10월 2일 간디의 생일이라 학교 전체가 휴교를 했다. 평일에 가져보는 이 여유로움, 흐뭇한 생각이 든다. 수자타 아카데미에도착하여 설사로 2주일간을 골골

요의 원래 음성과 박자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면서 전혀 새로운 노래가 되곤 하지만 그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며 울동 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조차 어려워하지만, 한국 시스터가 앞에 나와서 짧은 힌디로 노래 부르며 울동 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행복해 하는 것 같다.

거리며 적응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학교 파트에서의 수업과 그 외 문화활동 등, 솔직히 병원보다 업무량은 많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게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아직은 짧은 힌디와 영어로 말을 나누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조차 그들과 감정을 교류해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나에겐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속에서 서로서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원을 한다. 그들에게 나의 존재가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소중한 경험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려고 하고 있다.

10시 정각, 만코시힐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10시30분 4학년 영어수업이 있는 나는 유치원 리더의 학생 자전거를 얻어 타고 학교로 향한다. 혼자 자전거로 가도 덥고 힘든데 나가자니 덥으므로 ... 미안한 맘으로 행어나 그가 힘들어할까 몸에 잔뜩 힘을 주곤 한다.

그저게는 만코시힐 유치원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사리를 입고 갔더니, 지나가던 길에 꼬맹이, 아줌마, 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평소와는 달리 더 크게 나마 스네 하고 인사하며 나를 반긴다. 그들의 인사에 웃음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로 대답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12명 가량의 4학년 학생, 영어수업시간이다. 힌디가 부족한 나를 위해 기존 영어 선생님(역시 17 18살이나 되었을까?)이 동행을 한다. 이제는 수업진행이 제법 수월하다. 나의 학생들 사이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 하는 것 같다. 매 수업시간마다 그들이 그리고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몇 주간 준비해 둔 힌디로 번역한 Korean Action Song 힌디로 번역하는 동시에 한국 동

오전에는 보통 유치원 수업, 오후에 1-2시간 정도의 수업과 10월 중순에 있을 공연 준비에 요즘은 다소 하루가 빠듯하게 지나간다. 내일은 아자드비가 유치원 수업이다. 걸어서 45분 가량의 편도거리에 지치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루를 이왕이면 즐겁게 시작해야지... 이제는 아자드비가 리더의 자전거 뒤에 잠시 몸을 실어야 할지도...

내일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은 이만 달콤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제이티에스 수자타아카데미

기술중고등학교에 기자재를 마련해 주세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 10월
한 낮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을 느낍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꾸준
한 관심으로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3년 1월 기술중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뻐하시고, 기자재구입을 위해 함께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실 기자재 내용

품 목	내 용	산출내역	소 계
컴퓨터	컴퓨터 15대 필요 현재 5대 구비되어있음 10대 더 필요함	10대 * 1,000,000원	10,000,000원
프린터	1대 필요	1대 * 1,000,000원	1,000,000원
팩스	1대 필요	1대 * 500,000원	500,000원
타자기	20여대 필요 현재 10대가 모두 구비되어 있음 10대 더 필요함	10대 * 200,000원	2,000,000원
재봉틀	20여대 필요 현재 20여대가 구비되어 있음 수리, 운영비, 재료가비가 필요함	1년 수리, 운영비, 재료비 약 50,000원	50,000원
오토릭샤	2대 필요. 수리, 운영비 필요함	2대 * 5,000,000원 수리, 운영비 100,000원	10,100,000원
각종연장	기술교육에 필요한 연장	약 1,000,000원	1,000,000원
총 계			24,650,000원

참여방법

■ 후원금을 받습니다

- 지원해 주시고 싶은 품목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한 품목을 여러분이 나누어 함께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한가지의 몫으로는 안되더라도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86-01-0339-254 농협은행 044-01-094677 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전화주시면 기술중학교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 물품을 받습니다

- 586 컴퓨터는 정품으로 새것을 받습니다.



흑독한 겨울

자료제공: World Food Programme (WFP)
2002년 9월 30일
국제부

북한의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기부금의 감소로 인해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 3백만명의 여성, 아동, 노인에게 대한 식량 배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새로운 지원 약속이 없으면 추가적인 150만명이 한 겨울에 배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반적인 식량부족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흑독한 겨울이 닥쳐오면 이들은 건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비극은 이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짊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벼랑 끝에서 있다.”라고 세계식량기구 북한 지역 국장 Rick Corsino씨가 말했다.

이후 2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살기가 나은 남부, 서부 지방의 3백만 수혜자들에게도 첫 식량배급 중단의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여파가 미칠 것이다. 동부 산업지역도 내년 초쯤 피할 수도 있는 식량부족을 경험할 것이다.

이번 달 서부지역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백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제한된 칼로리 섭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하루 200그램의 곡물배급을 받지 못하였다. 14만명 이상의 노인·과부나 만성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지닌 독거 노인을 포함-들은 하루에 500그램의 배급없이 임시 변통해서 살아야한다. 원조 식량이 줄어들자 지난 5월에 중단된 25만 명의 중학교 학생에 대한 하루 200그램의 배급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10월 달엔 46만 유치원 아동과 약 25만 명의 임신부, 수유부 각각 하루에 350그램, 650그램에 대한 곡물 배급도 중단된다. 11월엔 92만5천명의 탁아소 아이들이 하루 160그램의 배급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이다. Corsino가 말하기를 “그때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 전역

의 고아와 소아병동 어린이들과 동부지방의 다른 영아와 여성. 현재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노력조차도 고갈되어버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WFP는 2002년 남은 기간과 내년 1월의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100,000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 Coresino가 말하길 “즉각적인 지원약속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도달하려면 적어도 2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위기가 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로 피해를 극소화시켰으면 한다.” WFP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 배급소(PDS)-전통적으로 2천3백만 사람들 대부분에게 식량을 공급하던 주요 공급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PDS는 현재 정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300그램의 식량을 제공한다-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최소한의 섭취량의 반도 채 안 되는 양임-그리고 다음 달부터 쌀과 옥수수의 추수로 배급량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정부가 수혜자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함으로 조사, 감독 활동을 제한 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WFP는 북한 내 스태프의 수를 늘림으로써 조사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조사활동에 대한 제한의 점차적인 완화는 WFP의 환영을 받고있다.

WFP가 1995년에 첫 번째 구호활동을 개시한 이후 가뭄, 홍수, 태풍이 북한 내 농업, 공업의 문제를 악화시켜왔다. 북한은 매년 상당한 양의 식량부족을 알려왔고 자급자족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정부 통계 치에 의하면 5세 이하 어린이의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이며 4백 만 명의 학령기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불량의 상태여서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0,000명의 임산부, 수유부들의 영양상태도 역시 불량하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천도(天道) / 스님, 울주군 백련사

2년 전 가을부터 겨울, 이듬해 봄까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땅 네팔과 인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뒤늦게 부처님 발자취를 보고, 느껴 보겠다고는 먼 수행자의 어리석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향 찾은 마음으로 나름대로 편하게 출발하였던 인도 행이었다.

네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로부터 출발하여 경전에 근거해 알고 있던 성지들을 특별한 감흥 없이 지나쳐 다니다가 보드가야에 이르렀고, 여느 순례자들처럼 성도 하신 보리수 아래서 좌선도 하고 티벳 승려들과 더불어 오체투지 절도하며 신령스런 기운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며칠 억지 애를 쓰고 있었다.

수자타 마을에서 동네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니란자라강을 건너서 등계스와리 언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한국사찰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니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한국인들과 좀 놀다 오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에 물이나 한 병들고 나선 길이었는데 1시간 2시간 여러 동네를 지나도 아직 더 가라고만 한



다. 갈증을 참으며 어렵게 도착한 등계스와리 언덕 밑에 자리잡은 수자타학교는 오후 시간이라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선주법사와 봉사자 학생 몇명만 지키고 있어 조용했다.

선주법사를 통해 수자타 아카데미가 건설된 동기와 역할, 현지의 실정을 들으면서 나는 '수행자' 라는 이름이 몹시 무색하고 부끄러워졌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끼니 밥을 먹지 못하여 몇 시간씩 불편한 다리를 끌고 학교에 나온다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자라는 내가 늘 배불리 먹어온 것들이 무한히 미안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 두끼 사 먹을 정도의 식사 값 만원이면 그곳 학생들 180명(그때 당시)에게 점심식판에 삶은 계란 한 알씩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 순례하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목젓을 뜨겁게 한다.



오로지, 삶은 계란 한 알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설렘,

그 아이들에게 온 마음과 노력을 쏟고 있는
봉사자들과 선생님들,

그녀들이 내게는 살아있는 ‘수자타’ 였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주리고 못 배운 부처님들에
게 유미죽을 공양 올리는 진정한 수자타인 것
이었다.

결핵 치료약이 가장 시급하던 선주법사
에게 내 순례의 며칠 생활비를 건네주며 한국
에 돌아가면 꼭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길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의 여행자들에게 꼭
수자타 아카데미를 다녀와야 한다고, 그 곳이
바로 제일의 성지이며, 살아 있는 부처들이 있
는 곳이라고 열변을 토해놓곤 했었는데, 실제
로 눈시울을 적시며 보드aga야로 되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자랑스런 우리 수자타들의 어엿은 모습을 보

고 그들의 삶에도 활기찬 전환점이 되었으리.

삶이 무의미해진 분들은 당장 꼭 가보시라
고 권하고 싶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젤 먼저
정토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소식지를 받아보
고 후원에 동참했으며, 도반 스님들이나 공감
하는 인연들에게 후원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구어 놓는 일은 여러
가지다.

하기 어려운 일, 희망 있는 일에 혼신의 힘
을 쏟아 붓는 노력일 것이고, 좀 더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는 삶으로 순간 다가가는 실천과
그 좋은 느낌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
꿔 주리라고 생각한다.

삶이 넉넉한 건 많이 소유하고 쌓아 놓아서
가 아니고 많이 베풀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이다.

우리는 끝없이 자비해야하며 끝없이 사랑
해야 한다.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 새로운 만남”

임진수 / 자원봉사자, 한양대 응용화학공학과 3학년

9월 28일 오전 9시.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이불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전날 늦은 밤까지 컴퓨터 작업 때문에 잠을 못 잤던 터라 아침까지 늦잠을 자던 나는 문득 오늘이 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JTS에 대한 소개와 활동내용을 듣고 JTS의 활동내용을 담은 짤막한 비디오를 보았다.

내전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울 기력조차 상실한 듯한 아이의 절망적인 눈망울, 질병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극도의 문맹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비디오로 시칭하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생겼고,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감사하게 되었다.



비디오 시청 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봉사의 방법에 대해 생각했고 처음보다는 다들 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명감에 찬 눈빛을 한 진지한 의견들이었다.

비디오의 내용을 통해 JTS의 활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활동하는 JTS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각각 봉사할 시간을 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을 돌면서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밝은 얼굴, 밝은 목소리 다른 사무실과는 정적이지만 다른 느낌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의 두려움은 없어졌다.

개인적인 감정 변화라기 보다는 아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뿌듯함에 나도 이런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서먹함이 사라질 것 같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적은 인원이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그렇지만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어린이를 꾸준히 돕고 있는 인헌중학교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47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인헌중학교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함경북도 라진·선봉지역의 7개의 유치원 결연을 맺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
담당하시는 김남선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사) 한국제이티에스를 알게된 동기는

2000년 통일교육 실시를 위해서 정토회관을 방문을 통해서

■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결연을 하게 하나요.

체험중심통일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먼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람의 도리를 하는 실천 행으로 나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나눔의 실천으로 북한 주민 돕기를 시작하면서 라진, 선봉 지역의 탁아소 유치원과 연결되어 2000년 이래로 매해 교사들과 더불어 7,80명의 어린이들과 결연을 해오면서 이것과 관련된 통일교육자료 배부를 통해 통일교육과 연계시키고 있다.

■ 저희 단체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통일을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출구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적인 공인도 연계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점은 아직도 대북 냉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가끔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 여러 가지로 도움주신 분들은요.

인헌중학교 전 교장님인 김성일선생님과 현재 조정연 교장님과 조채기 교감님 그리고 다수 교사들의 협조와 학생들의 헌신에 힘입은 것입니다.

■ (사) 한국제이티에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헌신적인 생명살림운동, 인류의 평화와 밝은 문명 개화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는 노벨평화상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바로 여러분 진실로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인도기술증, ·고등학교 원공 예정



2001년 8월에 시작해 2003년 1월에 2층 8개 교실의 기술학교와 부속 식당 건물(2400평방 피트)이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에 앞서 컴퓨터, 팩스, 공구 등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3명 인도로 떠났다.

박경미(여, 39세), 김동훈(남, 30세), 장석우(남, 23세)님 3명이 지난 10월 11일 서울을 떠나 인도 동계스와리 수자타 아카



데미와 지바카병원, 마을개발, 공사 자원활동을 위해 인도 JIS에 도착하여 결핵퇴치사업, 건축, 후원 등의 일을 맡아 열심히 하고 있다.

· 동계스와리 지역 까나홀 마을에 콜레라 발병

지난 10월 15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산을 넘어가는 마을 까나홀에서 마을의 우물에서 감염이 되어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16일 현재 1명이 죽고, 12명이 증상을 보여 지바카 병원에서는 긴급 상황에 들어가서 우물 소독과 증상에 따른 격리 등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소식

·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과 박지나이사님 아프카니스탄 현장에 다녀오다.

지난 9월16일-20일 오랜 가뭄과 미군 폭격으로 피

폐해진 아프카니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프카니스탄의 수도 카블로 들어가서 카블 북부지역과 남부 칸타하르지역까지 육로로 답사하고 돌아와서 생생한 보고를 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JIS에서는 아프카니스탄 구호사업으로 카블 근교의 소형 댐 건설, 학교지원, 칸타하르지역의 자국내 유민캠프(IDP 캠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겨레신문, KBS라디오, 불교방송에 JIS 아프카니스탄 지원사업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법륜스님의 아프칸 방문기 (한겨레신문 10월 2일자)와 박지나이사님의 물품 모으기 (10월 7일 KBS라디오, 불교방



송) 유정길, 이덕아님의 현장으로 떠나는 기사(한겨레신문 10월 11일)가 실려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모아주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다.

· 현장에 3명의 실무자를 파견하다.

지난 10월 8일 1차로 박지나이사과 선주법사(이덕아) 두 사람이 서울을 떠나 파키스탄의 난민촌을 둘러보고 13일 아프카니스탄의 수도 카블에 도착하여 거주지를 마련하고 NGO등록하는 일을 착수하였다. 또한 여권 준비가 늦어진 법운법사(유정길)은 10월 14일 서울을 떠나 인도 델리를 거쳐서 20일 아프카니스탄의 카블에 합류하여 구호사업을 착수하였다.

·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위한 겨울나기 물품 모으기와 후원금 접수

지난 10월2일-10월31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위한 겨울나기 물품 모으기와 후원금 접수가 이웃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차는 마감되었고 추후에 다시 모으기로 했다. 아프칸 어린이를 위해 학용품을 계속 받고 있으며 학교 짓기 등을 위한 후원금도 받고 있다.

북한 지원 사업

- 10월 22일 라선시 탁아유치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원재료 중 분유 10톤, 설탕 20톤, 옥수수쌀 12톤, 입쌀 38톤이 지원된다.

이중 분유와 설탕, 매일유업에서 후원한 맘마밀은 22일 부산항에서 라선항을 통해서 JTS 어린이 영양식 공장에서 인수하였고, 옥수수쌀과 입쌀은 중국 연길에서 구입하여 육로를 통해 라선 JTS 어린이 영양식 공장으로 전달되었다.

국내 사업

- 국민은행 도심공항타워 기업지점(지점장-박경돈님)에서 수재의연금 기탁

지난 2002년 9월 12일(목) 국민은행에서는 <한가위 큰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 바쁜 시간을 내어 박경돈지점장님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전달해 주신 기금과 정토회에서 모은 기금 1천여만원으로 정토회 긴급구조단이 파견되었던 강원도 강릉 내곡동 주민들에게 밥술을 전달하였다. 수재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내곡동 1, 2, 3동 주민들에게 10인용 전기밥솥 528개를 전달했다

- 0지현사무국장 평화를 위한 일본 해외연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본 회의 이지현사무국장이 9월 28일-10월 5일까지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한일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번 연수는 동경,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등지의 평화단체 및 NGO를 탐방하였다.

- 가톨릭대학교 자원봉사자 교육

9월 28일 오전 10시-12시까지 세미나 1에서 동국대 2명, 한양대 7명이 참석하여 각자 소개, 홍보 비디오회, 자원봉사자의 길, 참가소감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현재 홍보, 회원관리, 물품정리 등 각

부서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 (주)매일유업(대표 김정원)에서 어린이 이유식인



맘마밀을 4,800캔 (400박스 19,000,000원 상당)을 후원 받았다. 10월 17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매일유업 중부공장에서 부산항으로 운송되었으며 이 이유식은 라선시 탁아소 어린이 영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후원해 주신 매일유업에 감사드린다.

- (주)대신통운에서 매일유업의 맘마밀 4,800캔을 경기도 평택에서 부산항까지 무료운송을 해 주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 아프카니스탄에 겨울용 의류 지원 활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주)하이탑(대표 박석호)에서 중고 의류 40피트 컨테이너 3컨테이너 분



의 의류를 아프카니스탄 난민촌 지원을 위해 기부를 약정하였고, 10월 중으로 아프카니스탄으로 물건이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포메이트무역(대표 박차한)에서도 겨울나기 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후원해 주시기로 했고 10월중에 아프카니스탄으로 물건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두 곳에서 지원한 의류는 대략 20만 피스로 난민촌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 국제협력단에서 아프카니스탄지원사업지원

국제협력단에서 10월 16일자로 JTS의 아프카니스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1억2천5백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 지원금은 카불근교 댐 건설, 학교지원, 칸다하르 난민촌에 지원된다. 2003년 6월까지 지원되는 것이다. 조만 간에 협정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2년 8월 13일부터 2002년 10월 7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김인숙 211-11485-11
 박순자 211-11521-11
 이준우 211-11483-11
 김두레 211-11522-11
 인터GMT 211-11486-11
 조진현 211-11521-11
 박근연 211-11519-11
 문형진 211-11476-11
 최순영 211-11524-11
 박명희 211-11475-11
 박태화 211-11525-11
 허서중 211-11488-11
 김판열 211-11526-11
 이수연 211-11489-11
 노승용 211-11527-11
 박지숙 211-11496-11
 김희준 211-11528-11
 방정희 211-11487-11
 구통평 212-11531-11
 황경숙 211-11491-11
 황수경(한마음장학회) 211-11532-11 (무창농장탁아소)
 박승태 211-11492-11
 최두관 211-11533-11
 하장춘 211-11493-11
 한영태 211-11534-11
 김재원 211-11494-11
 박순옥 111-02826-11
 심치섭 211-11495-11
 김기영 211-11497-11
 최인선 211-11498-11
 정미하 211-00499-11
 배복남 211-11500-11
 노재선 211-11501-11
 강해수 211-11502-11
 강기학 211-11503-11
 김영수 212-11504-11 (조산리탁아소)
 오금실 211-11506-11
 김현미, 함지웅 211-11507-11

엄영건 211-11509-11
 김숙희 211-11510-11
 정삼덕 211-11511-11
 김정주 212-11512-11
 김옥주 211-11513-11
 권준희 211-11514-11
 김미경 211-11515-11
 신경화 211-11516-11
 황영애 211-11517-11
 성동제 211-11518-11
 장상영 211-11519-11

인도 어린이 결연

백정순 111-02752-14
 엄기덕 111-02803-14
 노귀남 111-02753-14
 황규순 111-02804-14
 오승호 111-02755-14
 김혜정 111-02805-14
 정정오 111-02756-14
 김기섭 111-02806-14
 이재성 111-02758-14
 해관스님 111-02807-14
 김복진 111-02759-14
 박영숙 111-02808-14
 최재근 111-02768-14
 심지희 111-02809-14
 강아름 111-02769-14
 정기식 111-02810-14
 김광미 111-02770-14
 김순덕 111-02814-14
 김행림 111-02771-14
 한만석 111-02815-14
 정진자 111-02772-14
 황용일 111-02816-14
 정정민 111-02773-14
 해은스님 111-02817-14
 최기덕 111-02774-14
 이한권 111-02818-14
 민경성 111-02775-14
 박은경 111-02820-14

문복림 111-02777-14
 남정옥 111-02821-14
 박팔용 111-02778-14
 복진국 111-02822-14
 정은숙 111-02779-14
 신부용, 홍미자 111-02823-14
 박광수 111-02780-14
 신보람 111-02824-14
 전철순 111-02781-14
 이숙기 111-02825-14
 김종석 111-02782-14
 박순옥 111-02826-14
 오구자 111-02783-14
 김원웅 111-02827-14
 대흥사관음암 111-02784-11
 자은스님 111-02828-14
 박민수 111-02785-14
 정동원아들 111-02829-14
 정철자 111-02786-14
 박순옥 111-02826-14
 석우스님 111-02787-14
 권미영 111-02790-14
 윤종환 111-02791-14
 송신옥 111-02792-14
 최순분 111-02793-14
 서숙이 111-02794-14
 정복연 111-02795-14
 안명희, 남정기 111-02796-14
 정구스님 111-02797-14
 조문 111-02798-14
 이한숙 111-02799-14
 도현 111-02800-14
 현승건 111-02801-14

결핵퇴치회원

정병철 311-00198-13
 김정숙 311-00240-13
 이순이 311-00199-13
 김순연 311-00241-13
 정윤희 311-00200-13
 최순향 311-00216-13
 정필순 311-00201-13
 승복사 311-00242-13
 김록수 311-00202-13
 남정자 311-00243-13
 박근숙 311-00244-13
 박보문화 311-00205-13
 정미숙 311-00245-13
 연꽃회(보타하) 311-00206-13
 박순옥 111-02826-13
 최영희 311-00218-13
 문기득 311-00208-13
 지만규 311-00209-13
 문형근 311-00210-13
 지호섭 311-00211-13
 허소정 311-00212-13
 류홍기 311-00213-13
 하정숙 311-00214-13
 한형인 311-00215-13
 김순영 311-00216-13
 최순향 311-00217-13
 이정래 311-00218-13
 최성희 311-00219-13
 조은아 311-00221-13
 장동수 311-00222-13
 서송열 311-00223-13
 박중수, 이혜진 311-00224-13
 김남수 311-00225-13
 지원경 311-00226-13
 박형근 311-00227-13
 장재영 311-00228-13
 정회경 311-00230-13
 양선미 311-00231-13
 조현백 311-00232-13
 김종하 311-00234-13
 유정식, 박금희 311-00235-13
 조협, 김경희, 조은 311-00234-13
 양귀자 311-00236-13
 김명훈 311-00237-13
 정영부 311-00239-13

특별후원금

2002.08.13-2002.09.30

설윤훈 500,000 조화순영가(강재연) 50,000 해륜 200,000 대구법당 120,000 최
 청운,진정연(혜타) 1,000,000 박용애 3,000,000 한청련 1,068,210 문상인
 100,000 최원영 1,000,000 오상현 900,000 봉은사거사물교애수보리반
 281,000 퍼스보트 353,350 이경순 1,000,000 인도병원후원금 50,000 김복진 1,000,000 박숙희 30,000 명성
 여고2-9반 340,000 엄기덕 1,000,000 황규순 1,000,000 엄정민의 2명 30,000 강담규 108,573 김용봉영가(조
 은순) 200,000 일산보살님 (물품) 100,000 일본JVC 60,000 OB대학회 200,000 임양호(물품)20,000 김재희
 3,000,000 자재왕보살님 300,000 김강수 400,000 김용귀 30,000 이정표생일(송부순보살님 손주) 30,000 이규
 정생일(송부순보살님손주) 50,000 이선표생일(송부순보살님손주) 50,000 이인숙 200,000 문금자 150,000 허연
 화 105,000 황성규 1,000,000 엄정민의 2명 300,000 유순호 50,000 아람성 100,000 심명수 100,000 이경순 1,000,000

물 품 후 원

8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무실에 도착된 물품입니다.

- 1) 서울정보법당 첫술104개, 비누45 공책67권 외 생활필수품 및 문구류 8박스
- 2) 정태호 회원어패럴 여성의류1,015피스 15,000,000원 상당
- 3) 임순옥 비누27개
- 4) 김호숙 수건7장
- 5) 대구정보법당 첫술532개, 수건341장 외 생활필수품15박스
- 6) 운문사 불펜21, 티셔츠26, 수건5, 양말3, 첫술2, 남팬티17, 남런닝22, 회색티18
- 7) 청안사 맨생리대1필, 세수대야89개, 첫술530개, 치약82, 비누121, 수건317, 비누통3, 양말3
- 8) 금정사 첫술235개, 치약52, 비누65, 수건82, 양말133, 런닝29, 팬티37, 티셔츠1
- 9) 창동약세사리 머리핀315개
- 10) 한국제약협회 경남제약 외 31개사 58품목 23,501,150원 상당
- 11) 부산정보법당 공책112권, 연필75자루, 수건50장 외 문구류 및 생활필수품 4박스
- 12) 금천선원 학용품1박스, 양말,내의1박스, 수건,어린이반팔티1박스
- 13) 동대문 덕운시장 페페로, 백천사, 꼬망스, 죠다쉬, 김경희 의류1박스
- 14) 김민혜 치약40개
- 15) 김명자 수건25장, 남자화장품 9세트
- 16) 김선우 치약6개, 비누4장
- 17) 한얼에이디 여성의류 920피스 27,680,000원 상당
- 18) 정교회 해외사업부 치약95, 비누41, 수건85
- 19) 청주정보법당 수건100장, 비누40개 외 생활필수품 4박스
- 20) 미산정보법당 어린이의류144장, 실내화52켤레, 비누51개 외 생활필수품 6박스
- 21) 광주정보법당 비누26장의 생활필수품 2박스
- 22) 광진자활후건기관 양말386켤레, 여성속옷141장, 노트81권 외 생활필수품 6박스
- 23) 한혜숙 양말100켤레, 내의20벌
- 24) 매일유업 맘마밀 4,800캔 19,000,000원 상당
- 25) 최효정 연필6타스, 크레파스2타스

- 아프리카니스탄에 후원금을 내신 분의 명단과 후원물품 내력은 다음 호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 공제영수증은 12월에 전 회원에게 발급해드립니다.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2년 8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광주

김민석 1,000 강보준 2,130 강성신 2,200 강아람 2,500 강아람 6,700 강아람 7,140 강지인 5,000 강혜리 4,700 강혜리 4,000 고바로 6,170 광영주 2,900 광현호 4,250 김국원 3,280 김규진 170 김규진 2,230 김명진 2,250 김모세 5,000 김민경 2,250 김민성 630 김민정 3,440 김병석 2,960 김보람 880 김상수 2,580 김선 3,650 김세린 500 김연주 4,470 김영민 500 김은수 7,910 김은수 5,420 김은혜 1,230 김은혜 1,770 김정위 2,240 김지원 2,710 김지원 1,930 김지은 2,500 김진 4,860 김창현 4,860 김태진 1,800 김혜란 2,260 김효운 820 김희수 1,890 나그네 5,780 나재선 1,000 나재선 3,120 노수환 5,000 노영철 7,700 노지건 16,210 노행정 970 담임 선생님 14,630 담임선생님 7,890 독고진 1,690 독고진 1,360 명병석 4,040 무명 260 문명현 4,380 문명현 2,900 민경휘 6,280 민홍진 300 박동규 1,400 박성민 640 박지혜 2,320 박지환 940 박진아 9,460 박찬근 8,480 박혜연 1,310 배애은 1,250 배애은 3,690 배희선 5,100 백광운 1,400 백광운 1,930 백민지 3,280 서보인 1,000 서중석 2,220 소민하 5,170 소민화 2,700 송민 13,200 송혜미 2,410 신석 5,000 신영란 2,000 신일상 7,460 심용선 5,100 심재한 8,150 심재환 860 안씨미 1,070 안정기 5,000 양호열 7,200 엄세미 730 염민지 970 오지혜 920 오진선 1,500 오진선 4,570 유승원 410 윤상철 1,230 윤상철 2,020 이다은 5,830 이다은 5,670 이다미 1,200 이다미 3,710 이다미 1,560 이민하 29,880 이나라 2,840 이산하 8,240 이산하 13,690 이상현 4,400 이영진 1,000 이영진 1,900 이예슬 5,000 이왕 550 이왕 1,050 이윤진 1,900 이은혜 1,900 이정우 2,390 이주안 1,000 이지경 1,000 이지연 1,640 이진우 1,500 이진우 610 이푸름 3,570 이푸름 3,320 이하영 2,320 이한얼 690 이현아 1,600 이현아 3,650 이현호 3,330 이환희 2,320 임현진 3,660 장서연 1,160 장은혜 2,640 장현진 5,510 전병석 1,950 전준형 1,650 정의진 1,900 정화는 3,750 정화는 3,100 조수경 1,770 조수정 1,760 조혜인 3,740 채승연 870 채승연 1,040 채현수 13,550 채현수 9,640 최동호 2,480 최동호 1,580 최동훈 1,130 최성원 540 최지애 5,950 최혜림 3,600 한규성 7,960 한규성 5,140 한산 2,360 호현 990 호현 1,000 황은단 40,000 거리모금 141,650

■ 대구

김동철 24,420 김명희 5,580 김순희 11,250 김양모 24,950 김영수 16,950 김창심 33,900 김청목 102,020 남익순 23,390 대구법당 3,350 도수연 17,600 류경희 27,630 명심각 29,850 문영순 20,890 박상보 35,509 박정선 23,750 서연우 12,030 서정채 35,990 송순이 34,320 송영화 33,460 신금희 22,110 신혜정 24,940 안춘옥 26,900 엄옥례 23,070 여혜주 70,500 이경호 원준 7,060 이승민 28,390 이정환 27,150 임은숙 39,320 임인지 23,910 전병득 110,200 전병찬 47,900 전병화 17,300 정평화 31,520 조옥분 29,900 철학원 43,970 청안사 77,060 청안사 47,980 최웅근 44,710 최웅근 40,590 최웅근 40,000최은숙 23,040 최일선 25,300 최태현 3,100 한옥주 19,520 한우식당 9,040 거리모금 247,860

■ 대전

김순용 19,170 김경희 2,530 김기호 5,740 김남식 54,270 김남식 65,980 김대성 2,640 김대현 5,660 김덕순 2,830 김동선 38,900 김병우 5,260 김종복 29,310 김준규 16,600 무명 1,600 무명 1,260 무명 2,310 무명 1,630 무명 3,780 무명 2,010 무명 2,250 박노택 1,590 박찬억 5,570 박찬옥 3,960 박태우 1,540 백제병원 5,430 신광호 80,050 신광호 61,130 안근옥 7,340 양지은 30,510 양현로 33,280 양현택 33,320 이기욱 32,930 이남숙 2,320 이부선 2,980 이숙희 57,060 이영남 1,970 이재명 11,950 이정선 21,250 이정선 19,770 이창림 6,520 이필호 13,130 임정희 3,460 조미라 30,020 조원숙 11,950 중앙불교 6,080 최기현 44,390 최병규 4,180 최희죽 4,220 흥산빌 1,410 황귀숙 28,870 황규영 22,940 거리모금 147,190

■ 독일

김민자 103,530 양순자 60,820 이원순 79,720

■ 마산

김지은 26,770 김상형 26,980 김순화 24,130 김영희 24,920 대우백화점 81,250 류구희 24,150 류동진 10,830 류송희 9,200 류은정 31,000 류철희 10,000 무주상 20,320 무주상 20,820 무주상 16,120 무주상 25,200 무주상 13,710 무주상 35,930 무주상 38,250 무주상 59,580 문지숙 24,300 박추자 14,780 변감희 22,680 변주는 24,130 변형식 임춘화

19,140 삼신행 23,310 신세권 71,800 양진월 19,720 이현희 36,480 임병주 3,930 임정희 18,170 임준혁 임수현 16,000 정덕연 21,650 정숙연 19,450 정순을 21,830 정태화 22,460 정홍자 21,480 조신자 5,120 최선호 24,280 최정옥 11,420 한शल림 대방동점 3,590 한초자 17,670 한초화 14,050 해운초등학교 9,110 해운초등학교 10,260 해운초등학교 18,820 해운초등학교 39,450 해운초등학교 6,370 흥진수 18,060 황선옥 43,280 거리모금 261,820 거리모금 200,120 거리모금 1,797,360

■ 부산

강경수민 18,060 강동현 28,550 강분옥 24,590 공원란 50,310 금정산 20,080 김경미 4,030 김동현 4,650 김두옥 20,750 김미진 3,910 김성희 21,400 김수민 24,450 김수연 30,950 김예진 9,790 김윤희 28,400 김은지 19,200 김지연 9,070 김채운 8,410 김초은 6,670 김하원 11,040 김홍원 11,250 김휘수 5,330 노솔련 39,050 노진아 12,720 무명 9,400 무명 2,680 무명 9,630 무명 4,480 무명 2,200 무명 3,570 무명 10,030 무명 9,250 무명 4,560 무명 37,420 문일어린이집 23,970 박계선 25,100 박성기 20,550 박성일 24,350 박장우 560 박정민 2,850 박진수 19,180 박진우 1,040 보광 21,780 보광 30,510 부경민 15,970 서무선 23,120 서민지 6,040 서홍재 52,370 안지현 72,050 안지현 7,170 유미나 23,900 유미나 24,450 이경은 14,170 이경호 13,370 이성근 540 이소영 9,290 이숨이 9,190 이승우 30,010 이사는 25,810 이어경 22,910 이용성 4,660 이장산 14,610 이재준 26,320 이준호 20,420 이지민 53,460 이해일 8,900 이형주 9,910 임정훈 9,720 장진화 75,700 정미나 안순자 2,580 정순완 20,260 정옥남 14160정재웅 6,720 정정숙 20,750 정한정 5,150 조윤상 16,580 주용근 45,960 진숙희 14,800 최광수 39,060 해양문화사 23,650 허미 3,250 홍지연 37,460 거리모금 70,000 거리모금 1,005,200

■ 서울

강민우 2,940 강윤희 21,730 강지영 32,330 고미화 4,170 곽소정 22,830 곽영화 30,470 곽화화 33,840 구내식당 9,140 구혜진 2,060 권경희 18,170 권영미 22,440 권중우 17,120 금강일렉트론 47,240 김건우 5,110 김나연 17,240 김다은 5,000 김도영 24,420 김동해 33,780 김류진 1,400 김명혜 30,070 김민석 2,160 김민지 장미반 5,460 김버리 14,140 김상현 김상훈 33,820 김소연 14,080 김수지 27,330 김승민 7,240 김승환 23,830 김애경 12,580 김영민 50,000 김영조 7,000 김은주 3,500 김재천 5,000 김재현 5,000 김재현 6,510 김정숙 10,000 김정숙 10,000 김정영 30,240 김정우 21,460 김정현 6,250 김조현 10,000 김중수 23,670 김지성 9,170 김지용 16,440 김춘선 김길선 11,690 김혜량 6,960 김혜민 8,470 남태민 20,330 남정현 27,000 녹숙자 19,090 대학생부 31,840 동길스 1,100 모덕 32,900 무명 2,000 무명 1,430 무명 20,000 무명 70,260 무명 2,140 무명 17,400 무명 23,920 무명 21,480 무명 29,850 무명 15,200 무명 5,170 무명 810 무명 600 무명 400 무명 500 무명 2,800 무명 1,000 무명 5,700 무명 1,500 무명 4,000 무명 700 무명 22,000 무명 2,400 무명 1,000 무명 2,500 무명 17,790 무명 290 무명 27,420 무명 31,460 무명 7,170 무명 33,250 무명 25,080 무명 11,670 무명 39,830 무명 10,940 무명 17,250 무명 370 무명씨 11,720 문태운 22,800 박다현 12,600 박상일 6,930 박선하 23,330 박소영 2,460 박이람 9,130 박영숙 20,000 박준혁 3,780 박태현 18,920 박현아 7,150 박현우 5,990 박희연 4,420 방동필 31,960 법안동 33,080 보수 13,560 불국화 47,560 서민준 7,530 선덕사 189,310 성광사 101,080 성은아 5,260 소희지 4,750 손상영 27,360 손은정 1,460 손지민 10,670 송세정 6,820 신방학중 2/1 18,500 신정열 20,840 신찬혁 8,990 신홍사 성일스님 1,367,720 심규현 100,000 안부금 41,900 안성현 36,920 엄지희 13,830 오승아 1,840 오재영 2,620 오진영 2,720 오태양 10,880 오혁진 1,950 윤다희 2,500 원명용 500 원문스님 72,100 유경원 6,880 유영신 15,980 윤상호 5,130 윤선미 6,020 윤선재 25,830 윤순연 4,840 윤원수 21,440 이경영 28,500 이경옥 700 이계한 2,830 이광섭 50,000 이귀옥 1,100 이기갑 30,000 이기갑 30,000 이나나 12,860 이동혁 4,140 이명옥 4,300 이미다 18,230 이복란 1,300 이상환 26,190 이선화 63,600 이세영 6,000 이시연 4,040 이영조 26,190 이예은 12,210 이옥수 6,760 이옥순 730 이몽민 6,770 이몽민 4,340 이원경 830 이유태 10,060 이윤석 8,560 이은빈 8,170 이정오 6,200 이종화 백함반 8,000 이주현 11,670 이현희 10,440 이효경 5,460 임순옥 41,950 임인기 19,410 자체정사 50,000 장금숙 5,380 장명애 3,610 정용호 9,630 정의학 14,410 조은수 25,880 조은애 14,600 조은정 20,000 조은정 12,000 조재우 5,380 조정휘 44,450 주명옥 630 주은미 16,570 지소진 1,160 지호섭 24,800 지호섭 17,130 진희영 5,840 차영호 22,330 차호영 17,630 최석준 38,970 최성현 최건웅 23,010 최승철 2,400 최은수 12,090 최정민 19,870 최지수 3,900 최지은 21,530 최지은 33,170 최형석 4,520 한미영 23,430 한성호 19,000 한지현 10,790 허서종 100,000 허순원 4,530 허유진 4,360 허지민 1,510 현소희 18,730 현재영 3,720 혜옥스님 봉덕사 1,115,700 황금택 6,290 황대호 18,830 황영태 18,360 황인준 9,530 황화숙 22,010 거리모금 268,100 거리모금 349,190 거리모금 35,570 거리모금 19,200 거리모금 42,000 거리모금 10,660 거리모금 8,160 거리모금 123,230 거리모금 25,100 거리모금 20,600 거리모금 50,600 거리모금 35,480 거리모금 176,930 거리모금 10,000 거리모금 35,800 거리모금 301,900 거리모금 84,870 거리모금 69,120 거리모금 19,850 거리모금 124,530 거리모금 73,050 거리모금 11,150 거리모금 218,530 거리모금 5,510 거리모금 141,860 거리모금 31,820

■ 청주

거리모금 574,48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10. 15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10. 15 현재



작은 정성이 모여져 큰 버팀목이

유미영 / 회원관리부 자원활동가

푸른 은행잎을 주워 입가에 되면 금새 노랗게 물들여질 것 같은 그런 창연한 날입니다.

쏟알같이 지나는 계절이 아쉬워 이 가을을 껴안고 싶어지는 오늘입니다. 하시던 모든 일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 산에 눈길을 한 번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동안 편히 지내셨는지요?

따스한 사람들로 모여진 JTS 입니다..

쫘리리고 헐벗은 이 들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해 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아쉬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들을 보듬어 안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저희는 결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JTS는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추슬러야 했고, 다듬어진 행동으로 정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사명을 따스한 눈길로, 마음으로, 몸짓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이 바로 후원자들이셨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외된 그들에게 안온한 쉼터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 바로 님들이십니다. 항상 님들의 격려와 질책이 없었으면 우린 결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후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마음 보내주십시오. 저희 JTS는 전에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